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으실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간 지나고, 돌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였지만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항상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해를 감사함과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17절

지구촌, 전쟁과 끊이지 않는 코로나에 사회주의 물결로 물들어간다

VOA, 특집 보도로 2022년 국제 사회 주요 뉴스 정리와 재조명

2022년 한 해도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연말 특집으로, 올 한 해 국제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뉴스를 정리하면서 재조명해준다 (Top International Stories - Explore World News).

"전 세계를 뒤흔든 21세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올해 가장 큰 국제 뉴스는 두말할 것 없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러시아는 2월 24일 새벽을 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단행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늘 무력 충돌과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유럽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진 건 21세기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러시아는 지금도 여전히 공식적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탈나치화를 목표로 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현 정권을 '신나치 정권'으로 묘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서방 노선을 걸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가입을 모색하면서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전 초반 러시아가 순식간에 수도 크이우를 함락하고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전쟁은 지금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양국은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치고 있고, 안보뿐만 아니라 식량, 에너지, 경제 등 전 분야



의 글로벌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만에 하나 핵무기 사용을 감행한다면 이는 지역 분쟁 그 이상의 사태로, 자칫 인류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글로벌 위기가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이미 국제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 생산·수출국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이다. 그

런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등 주로 식량을 수입해왔던 나라들은 비상이 걸렸다.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유엔과 터키의 중재로 일단 곡물 수출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봉쇄했던 흑해 항로를 개방하고 곡물 선박의 항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에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다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번복하는 등 불안한 협정을 이어가고 있다.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반발해 가스와 원유 공급을 계속 축소해왔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

들은 숯구치는 연료비와 함께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전쟁으로 인명 피해도 막대하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12월 초 기준, 전사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1만 명에서 1만 3천 명에 달한다.

러시아 측은 지난 9월, 5천 937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군 정보당국과 EU는 양국 모두 전사자와 부상병 합쳐 각각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유엔은 11월 27일 기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6천655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419명은 어린이들였다.

(3면으로 계속)

승년 속시



김순관 목사

한해를 보내며

찬란한 태양이
차디찬 바닷물을 헤치고 올라오면서
어둠속에 잠겼던 온 세상이
다시 밝아오며
희망으로 맞이했던 새해 첫날에
새로운 기대와 꿈으로 부풀어
설레며 시작하던 날이 엇그제만 같은데

봄이 오며 여름이 되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며
우리의 기대와 꿈들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한 해를 보내야 할 길목에 서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리는 전도서의 구절이 귓전에 맴돈다

코로나는 3년째
온 세상을 제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고
뜬금없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탱크와 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하니
온 지구촌이 거센 후폭풍의 피해로
아우성이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봐도
이 혼란과 고통의 늪을 헤쳐 나갈
묘안이 없으니
그저 막막할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은

유가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함께 헤쳐나갈 조이면서
한탄에 한탄만 입에 달고 산다

그렇게 한 달 한 달 지나다 보니
어느새 열두 번째 달 중간에 서서
아 이제 올해가 며칠밖에 안남았구나.
그래, 한 세대는 가고 한세대는 오고
해는 뜨고 또 지고 세상이 그리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이치인 줄 모를 리 없었던만
헛되고 헛되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온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은 채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한 해가 이제 저물려고 준비를 한다

늘 그렇지만 다사다난했던 2022년
묵은해를 보내야하는 길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날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감격의 기도로 한 해를 보낼 뿐이다

김순관 목사

하와이한국교회의 담임목사/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역연합회 대표회장/하와이한인문인협회 고문 역임, 저서 시집 '그의 이름을 부르며' / 칼럼집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 '한국장로교회사' 외 다수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푸른초장
여운세 목사



4면
기독교 명저의 초대
이윤석 목사



8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진.료.인.내 - 치아미식(임플란트) - 구강외과/클리닉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2023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현장 및 온라인 입학설명회

미국시간 2023년 1월 6일 (금) 오후 4시
한국시간 2023년 1월 7일 (토) 오전 9시

(참석 후 등록시 전형료 100불 면제, 아래 QR 코드로 참가신청)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2023년 1월 20일 (금)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특징

전세계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Canvas를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최고의 교수진

해외한인장로교단(KPCA)
및 여러 교단들과
단체들에서의 사역 기회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비롯한
다양한 장학금 혜택
(1.5세 장학금)

유학생 환영
1-20 발행

전쟁과 끊이지 않는 코로나..

《1면에서 계속》 “중국 시진핑 집권 3기와 이례적 시위”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작업이 구현된 한 해였다.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내년 봄에 있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도 다시 선출될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3연임한 지도자는 마오쩌둥 초대 주석이 유일하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해 사실상 시 주석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시 주석의 3연임은 이미 널리 예견됐던 일이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20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포진하면서 중국 특색의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로 접어드는 모양새이다.

현재로서는 시 주석이 집권 3기, 5년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권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시 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할 올해, 중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보기 드문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이목이 집중됐다.

시 주석이 주창한 초강력 코로나 방역 정책이 3년째 계속되면서 지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진핑 주석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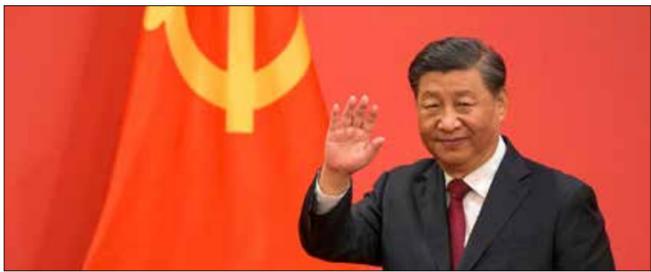
중국 당국은 서둘러 공간을 배치하고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초강경 경제 태세에 들어가며 시위 확산을 저지했다.

이어서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새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읽혀지고 있다.

“중남미 대륙을 물들이는 좌파의 물결, 핑크타이드”

최근 몇 년째 중남미 대륙에 불던 이른바 ‘핑크타이드’, 좌파 물결은 올해 브라질 대선으로 더 선명한 획을 그었다.

중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톨라 다시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군인 출신으로 극우 성향 정치인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근소한 차로 누



르고 승리했다.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결로 읽힌 이 대선에서 브라질 국민은 좌파의 상징 톨라 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에 이어 브라질까지, 중남미 경제 규모 상위 6개국 전부 좌파 물결에 휩싸이게 됐다.

특히 콜롬비아는 사상 첫 좌파 정권이 출범했다. 지난 6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콜롬비아 유권자들은 전 좌익 반군 게릴라 출신 후보를 선택했다.

중남미 주요 국가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큰 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외교 지형의 변화 속에 이들 국가의 외교 정책도 주목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중국이 최근 몇 년 인프라와 투자를 확대하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념적 동질성을 내세워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정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며 적극적으로 이들 나라와 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정부는 글로벌 환경이 복잡하게 펼쳐져 따라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입체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싸움”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이후 계속해서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내며 지금도 지구촌을 덮고 있다.

12월 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6억 4천 7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명이니 까 그 두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주요 방역 정책을 풀고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다시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한 달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다. 일본은 약 한 달간 26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한국은 150만 명 대이다. 그 뒤를 미국과 프랑스가 따르고 있다. 하지만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로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7일 기준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약 664만 6천 명이다. 감염증 증가 추세에 비해 사망자 증가는 두드러지게 둔화된 모습이다.

어쩌면 코로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평생 함께 가야 할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전망 속에, 각국 정부의 코로나와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시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저는 해마다 성탄절에‘동방의 제 4박사 이야기’를 합니다.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타반! 당시 40세의 파사 사람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서쪽에 큰 별이 하나 났다는 전갈을 받고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보물인 루비, 청옥, 진주를 가지고 2,000리나 되는 먼 길을 홀로 떠났습니다. 오론테스 산기슭을 지나고 니키야 평야를 지나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지 10일 되던 어느 날, 드디어 그는 동방의 3박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시간 전에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달려가던 그들의 황혼에 알타반은 길가 종려 나무 밑에서 이상한 물체 하나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히브리 사람 하나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동방의 3박사와 합류하기 위하여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때 히브리 사람은 알타반을 향해 “나를 살려 주시오!”—알타반은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저는 이 사람을 지나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타반은 그 환자에게 다가갈까 귀한 약을 부어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알타반이요. 예루살렘에 새 왕이 나셨다기에 만나되려 가는 길이었.” “그분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요.” 그러나 알타반은 동방의 3박사와의 약속때문에 부랴부랴 예루살렘의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이미 베들레헴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알타반이 다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동방의 3박사는 이미 경배를 올리고 떠난 후였습니다. 한없이 고요하지만 한 베들레헴. “태어나신 아기 왕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알타반이 묻자 한 여인이 작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둠으로 피난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이때 헤롯의 군대가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러 온다는 고함소리를 듣고 이 여인은 실신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알타반은 여인과 아기를 열른 집에 들여보내고 자기가 그 집 앞을 막아섰습니다. 곧이어 들어닥친 군인들이 그 집을 수색하려 하자 알타반은 청옥을 보여주면서 “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청옥을 주겠소” 그 보석을 보고 황홀해진 대장은 “이 집엔 아무도 없다.” 소리 지르고는 가 버렸습니다. “당신에게 바치려 했던 이 보석을 이 어린아이를 위해 썼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알타반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방방곡곡을 찾아 다녔고 살아남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루비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진주만은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 왕에게 바칠 마지막 남은 하나의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왕을 찾아 헤맨 지 어느덧 33년, 알타반은 어느새 73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녔던 어느 날, 때마침 유월절. “무슨 일이 일어났요?” “아니 당신은 여태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소? 우리가 메시야로 믿었던 예수가 사형을 당하다요.” 알타반은 기도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 마지막 진주로 그 예수를 속량해 보리라.” 늙은 알타반은 성문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을 바로 그때, 한 소녀가 알타반을 향해 말합니다. “착하신 할아버지.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빛 때문에 종으로 끌려갑니다. 저는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알타반은 “하나님! 이 진주는 저 사형당하는 왕을 위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물었지만 그는 어느덧 손을 펴서 빛나는 진주로 그 소녀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기와 하나가 떨어져 알타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알타반의 입술이 힘겹게 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저가 당신이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으며, 병 들었을 때 돌보아 드렸습니까? 저는 당신을 돕지도 못했는데..” 창백했던 알타반의 얼굴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불리음받아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마태복음 25:40)이라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강도 만난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바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기도, 지비와 긍휼, 선행)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2022년 성탄절에 우리가 동방의 제 4박사처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섬기며 나눌 때, 바로 그곳은 베들레헴 말 구유간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는데 은총을 덧입게 되지 않을까요? 성탄절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오늘의 알타반’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곳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는 ‘베들레헴 말 구유간’입니다.

1년 내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pastor.eun@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titl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양장로교회, 뉴저지성도교회, etc.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다~~~방구!

작년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대, 그리고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와 놀이에 큰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은 저도 외국인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한국어로 외칠 때 한국인으로서 남다른 자부

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 '오징어 게임 2'가 제작된다면 지역에 따라 '다방구' 또는 '다방구'라고 불리는 '술래잡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 동네 친구들과 놀았던 '다방구'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다방구'는 심플하지만, 순발력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합니다. 술래를 제외한 아이들은 모두 달아나 숨습니다. 술래는 보통 두 명인데, 한 명은 진을 지키고, 다른 한 명은 숨은 사람을 찾습니다. 술래에게 잡힌 첫 번째 아이는 나무나 전봇대를 붙들고 줄을 서야 합니다. 그 후에 잡힌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줄을 씁니다. 아이들이 많이 잡힐수록 줄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가 술래에게 잡히면 술래가 이깁니다. 한번 술래에 잡힌 아이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술래 몰래 아직 술래에게 잡히지 않은 아이가 줄을 서고 있는 아이를 터치하면서 '다방구!'를 외치면 모두 자유의 몸이 됩니다.

어린 시절 재미로 놀았던 '다방구' 놀이처럼, 신앙생활에도 영적 술래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의 우두머리인 사단과

그의 부하인 마귀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어 두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도 사단과 마귀에게 잡혀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의 줄이 끊어질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그 사슬에서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구해 줄 수 있을까요?

교육자, 과학자, 정치인, 철학자, 장군, 의사, 부자.... 그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들도 죄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한 분이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절대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번의 제사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한국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는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로 가야하고, 어부의 고기잡는 길은 물로 가야하고, 인간의 활로는 십자가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란 책에서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딸,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대상을 적어 보려면?.. 종이는 깨끗하다. 연필도 없다. 목록에 올릴 이름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록에는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의 이름들이 다 적혀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람의 범위인 까닭이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이유이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님께서 죄의 족쇄를 풀어 주십니다. 죄의 고통, 죄책감, 죄의 삶인 사망, 죄의 역압에서 완전히 풀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십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성탄을 맞은 이 시점에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영원히 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죄의 사슬에 묶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방구' 하시며 터치하십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어귀에서 '다방구'놀이를 즐기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영적 술래에게 잡혀 죄의 사슬에 묶여있나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니까?...

푸/른/초/장

여운세 목사

(전 미주뉴욕장로회신학교 조직신학교수)



우리 주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과 함께 경축하며 2023년도 우리들의 참된 교회의 삶을 살펴보고 하겠습니니다.

성경은 동물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던 원시시대의 제단에서부터 오순절 신약시대에 이르는 제단(교회)들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5000년의 긴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단(교회)의 발전과정을 통한 이해와 성찰은 새해의 우리의 참된 교회의 삶을 위하여 참으로 유익합니다.

제단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예배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2) 희생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5)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분노하사 지면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을 멸하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고페루 나무(cypress wood)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을 막고 역청(pich)을 그 안에 밖에 칠하라"고 자세한 설계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의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하였고 40일 동안에 전 인류는 물에 수장되어 멸망되었고 오직 노아의 여덟 식구만 방주에 의하여 생명을 보존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창 12:7-8, 13:18),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하신 '여호와아래'(하나님이 준비하리라)의 수염소를 제물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셨습니다(창 22:1-18).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대속(vicarious)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리

된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환난과 코로나와 같은 각종 질병과 고난에 지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며 사랑의 안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시은소(the mercy seat)가 제단이며 교회입니다.

5.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에 세워진 모세의 성막제단 (교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출 25:9)라고 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금과 은과 화강석과 백향목과 오색 찬란한 각종 재료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deidy)과 왕으로서의 임재와 그의 거룩한 심을 보여줍니다. 이 성막의

중심의 삶 그리고 교회중심의 삶을 통하여 총성된 신앙의 성도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6.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성전제단 (교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의 모형과 구조적 내용을 그대로 본을 삼아 건축되되 크기가 엄청난 석조건물입니다. 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왕상 8:10-11).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많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제사의 문제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 불에 타버렸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주후 78년 로마 티투스(Titus) 장군의 침공으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

스도 메시아를 제외하고 예배하는 듯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들로서 우리 주님과 교회를 충성을 다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8. 그리스도 임마누엘(Immanuel)의 예수님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말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마 27:51).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갈 2:20)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생각하며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9. 하나님의 성전인 참 성도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잊지 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3장 1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쉼기나(Shekinah)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광채로서 영주하고 계심을 믿고 찬미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며 제단을 통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끝내면서 미주크리천신문사의 헌신에 감사하며 계속하여 건실한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yeewoonse@gmail.com

교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본 성도들의 교회의 삶 히브리서 10장 19-22절

1. 아벨의 제단

성경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1장 4절, 아벨의 제사는 중요한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는 돌단을 쌓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동물 제사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제사의 원형(original mode)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의 중요한 것은 4절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데 제사와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열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고 동시에 제물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와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예배이며 교회의 본질이며 축복입니다.

2. 노아의 방주

방주는 성막이나 성전보다 더 먼저 나온 교회를 상징하는 참 모형입니다. 창세기 6장 13-10장 32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주의 이야기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교회)로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교회의 구원의 본질과 참 도성을 상징하는 계시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방주'(ark)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아의 방주(ark). 2) 모세의 갈대상자(ark). 3) 모세의 성막안의 법궤(ark). 노아의 방주를 중심으로 한 위에 기록된 모든 방주들. 즉,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된 본질적 실체로서의 방주(교회)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방주라는 것을 보여주며 ark의 구원의 모습을 교훈 삼아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낡은 신앙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참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제단 (교회)

스도에 대한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교회의 삶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들의 소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기원합니다.

4. 야곱의 하란 광야에서의 돌제단 (교회)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하던 중 하란 광야에서 밤을 맞아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꿈 속에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야곱은 놀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제단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감사하여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심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창 29:10-22). 지금 야웨(yahweh)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돌기둥제단에 현현

모든 것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type)'이며 이 성막에서 드리는 동물들은 모두 계속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시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막을 심으므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고 성막 위의 구름의 이동함을 따라서 법궤를 앞세워 광야를 행진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님 중심(God centered life)의 삶과 그리스도 중심'(Christ centered life)의 삶의 본을 보여 준 것입니다. 히브리 9장에서 "이 장막(교회)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dwelling), 자기 백성을 만나시며(meeting),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며(ruling), 인도하시는(guiding) 거룩한 처소이다"고 전합니다. 성막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shekinah) 즉,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에서 교훈을 삼아 하나님 중심의 삶과 그리스도

라"(마 24:2)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즉 '교회를 교회되게'하는 바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여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이산민의 바벨론에서의 회당(Synagogue)

주전 586년 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조상들의 죄악을 포함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바벨론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회당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회당을 외형적으로 닮았으나 그들과 다른 점은 회당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교회(Jewish church)입니다. 오늘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마치 이 회당처럼 그리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그가 오신 이유

매주 어린자녀와 가족들이 정성스럽고 예쁘게 크리스마스 옷을 맞춰 입고, 대강절 말씀과 초를 점화하며 예배를 함께 드린다. 처음 아빠 품에 어색하게 안겨있던 아이는 어느새 성경 한 구절을 또박또박 읽어내려 성도님들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준다. 예배 축도 후 아이들이 즐겁게 흐르는 종소리에 맞춰 온 성도님들이 함께 크리스

마스 캐롤을 부르며 기쁨을 나눈다. 3주 전에 새로 오신 성도님께서 매 주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달콤한 도넛과 쿠키, 커피와 핫초코 웃음 섞인 대화들이 성도님들의 걸음을 교회에 오래 머물게 한다. 반짝거리는 트리보다 더 아름답고 환한 풍경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들려준다.

성탄의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리라. 우리부부는 한국 감리교신학대학교 선. 후배 동문이고 모두 감리교 목사 자녀이다. 특별히 남편은 학교와 교단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 지성과 영성을 갖춘 젊은 목회자로 23세에 공군군목으로 최연소 목사안수 임관을 했다. 우리는 남편이 대위로 공군군목 제대를 하며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모든 일에 계획적이며, 꼼꼼한 성격의 남편은 스스로 모든 유학 계획과 비용을 마련하여 박사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교회를 위해 쓰임 받고자 하였고 우리의 그런 계획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Ph.D 논문을 한참 쓰며 학업의 끝이 보이려 하는 때, 미네소타에 있는 한인교회에 파송이 되어 인터뷰를 가게 되었다. 많은 한인인민교회가 그러하듯, 성도님들간의 갈등 목사님과의 갈등으로 지난 2년 사이 교회는 많은 이들이 떠나

고, 마지막엔 목사님마저 떠나신 교회에 남은 성도님들은 노인분들과 미네소타대학에 유학한 청년들, 그리고 몇 성도님들뿐이었다. 감리사님과 함께 한 인터뷰를 마친 후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된 우리 부부는 기대와 너무 다른 교회 상황에 무거운 마음으로 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청년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셨는데, 너희들은 유학생들이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또 미국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며 걱정스러운 조언들을 해주셨다. 남편과 나는 우리가 지금 유학 와서 박사공부를 하는 이유는 더 준비된 좋은 목사가 되려 함인데, 결국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잘 갖춰진 교회 사역만을 위한 박사공부라면 우리의 공부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2010년 3월 미네소타로 이사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성도님들의 열심

안고 먼 길을 찾아온다.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를 사랑한 서울대학교 생은 버지니아연회 목사가 되어 함께 이웃교회를 섬기고 있다. 성탄의 기쁨과 기적은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지금 우리의 기쁨과 소망, 사랑의 이야기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Hope, Peace, Joy, Love

데 어떻게 교회에 남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청년들은 확고하고 당당하게 "어른들이 다 떠나셔도 우리라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하고 대답한다. 밝게 웃으며 얘기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고맙지만, 가슴 아팠다. 어려운 마음을 안고 우리는 학교로 돌아왔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남편이 그 교회 파송

과 사랑으로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 성장하고 안정이 되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후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환송을 받으며 버지니아 미국인회중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공부를 마치고 미국,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가정용 이룬 청년들이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싶다면 아이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영광의 왕 예수님께 경배 드린다. Emmanuel!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마태복은 20장 28절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의회, 가상화폐 규제로 방향 전환... "겨울 길 것"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사태 이후 미국 의회에서 규제 도입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다. 세러드 브라운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미 NBC 방송에 출연해 "연방기관이 가상화폐를 다루야 하고, 어쩌면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가상화폐는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 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위원장은 특히 "한국 사이버 범죄자, 마약 밀매, 인신매매, 테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금이 가상화폐로부터 나온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한국 언급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해킹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가상화폐 업계의 돈세탁 방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플랫폼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원 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FTX의 붕괴와 샘 뱅크먼 프리드의 체포로 가상화폐 거품이 확실히 터졌다는 느낌이 깊어졌다"며 "그동안 규제에 이의를 제기해 온 정부도 갑자기 돌변해 더 많은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악재가 되고 있다. 데이비드 케머리 코인렛서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진행 중인 크립토윈터(가상화폐 겨울)가 더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화폐 총 가치는 8500억 달러로 1년 전(3조 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중 2주 만에 사망자 2명 발표... "못 믿겠다"

중국에서 방역 완화로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밝힌 공식 사망자는 2명에 불과해 통계 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내년 3월까지 3차례 '코로나 파동'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보건 당국은 19일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난 4일 이후 줄곧 사망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2주 동안 없던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보건 당국 발표와 다르게 중국 내 상황은 심각하다. 베이징의 한 화장터 직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하루에 150구의 시신을 화장하는데 이 중 약 4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장례식장 직원은 로이터통신에 "지금은 영구차 예약도 쉽지 않아 개인 차량으로 시신을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



했다. 이에 사망자 수 집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중국 SNS 웨이보에는 "십수억 중국 인구 중에 (하루 사망자가) 불과 2명 이라니 놀라 죽을 지경이다" "이것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왔다. 황연중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의 글로벌 보건선임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분명히 실제 사망자 수보다 적게 계산됐다"며 "모니터링 능력 부족 탓일 수 있지만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대규모 공황을 피하기 위할 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쥬우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전문가는 지금의 중국은 앞으로 겪을 세 번의 코로나19 감염 파동 중 첫 번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완화로 시작된 현재의 1단계 파동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2차 파동은 같은 달 21일 중국의 설날인 춘제를 기점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거주지로 복귀하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3차 파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美 집값·임대료 동반 하락... 인플레이션 더 꺾이나

미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의 동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영향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 본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주거비 하락이 내년 초부터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돼 인플레이션 수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17일(현지시간) 부동산 업체 질로우에 따르면 11월 미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새너제이(-3.3%) 롤리(-2.5%) 피닉스(-1.6%) 등 과거 급증 지역의 하락 폭이 컸다.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물 거래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매물 등록 이후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2일로 지난해 평균 11일보다 2배로 늘었다. 구매자 우위 시장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10월 판매 주택의 50%가 최초 가격보다 싼값에 거래됐다. 11월 신규 매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4%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질로우는 "지난 10월 평균 모기지 금리는 6.90%로 2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해 주택 판매를 억제했다"며 "주택가격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한 완만한 내림세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시장도 상승세를 비슷하다. 질로우는 지난 11월 '관할임대료지수'가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지수를 산출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11월은 임대시장 비수기여서 통상 가격이 하락하지만 그 수준은 0.1% 내외였다. 질로우는 "더 많은 사람이 룸메이트나 동거가족을 배로 늘리고 있다"며 "이는 임대 매물 공실률을 높이면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의 주택경기 침체가 금융위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



석했다. WSJ는 "은행과 대출기관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대출 건전성을 대폭 높였다"며 대출 신청자들의 채무 지불 능력, 소득 증명 등 요건을 까다롭게 해 리스크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일본 '반격능력 보유'에 미국과 역할 재구축까지 추진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에서 미국과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는 그동안 방어에 치중하고, 미군은 공격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공격 기능도 일부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려고 한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어 "지침에 평상시 방공·미사일 방어와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 대처에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며 "대만과 중국의 전면전 발생 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하느냐도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일본의 공격 역할 확대가 논의될 것인 뜻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공격 역할 확대에 대한 현지언론의 분위기는 엇갈린다. 아사히신문은 17일 사실에서 "다른 나라 영토에 도달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전수방위 원칙을 공동화하며 방위비 2배 증액에 이어 끊이지 않는 군비 확장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정부는 상대방이 공격에 착수하면 현명상 반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착수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판단을 잘못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토신문은 "패전 후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쌓아온 안보체제를 뚫는 듯한 정책 전환과 구명투성이 방위비 증액"이라며 "국민의 이해나 협조 없이 이뤄질 수 없는 방위책을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정권의 수법은 지극히 난폭하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반격 능력은 미일 공동작전을 전제로 한다"며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 탐지와 공격 효과 분석 등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정찰위성과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 미군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APEC "국가간 무역장벽, 태평양 해양쓰레기 청소 방해"

국가 간 무역장벽 탓에 해양쓰레기 청소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진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태평양 등 해양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비자 문제, 관련 장비에 대한 관세, 현지 항공 및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APEC은 개별 국가의 다양한 무역



장벽의 방해요로 청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최신 회보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APEC은 또 해변 쓰레기 청소가 수십년간 진행돼 왔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등이 바다로 유입되는 통로인 하천에 대한 청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부유물은 태평양으로 모인 뒤 바람과 해류를 타고 잘게 분쇄돼 해저로 침전된다. 2040년에는 해저 미세플라스틱 규모가 현재의 2.6배가 될 전망이다. APEC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상과 해변 생태계, 이들 생태계에 의존하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하게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 미세플라스틱 쓰레기는 역내 국가의 관광·교통·양식산업에 109억 달러(약 14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추산된다.

벨라루스 간 푸틴 전선 높이는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방' 벨라루스를 방문하며 벨라루스군의 참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참전을 압박해온 푸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며 러시아가 연말 전후로 총공세에 나설 것인 관측도 나온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를 방문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했다. 푸틴 대통령의 벨라루스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크렘린궁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의 발전을 위한 핵심 쟁점, 국제와 지역 내 시급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경제 협력, 에너지 공급, 국방 및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두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러시아가 확전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합동군사령관인 세르히 나예프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추가 공격과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작전 개입 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벨라루스 내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벨라루스에 파견된 러시아군이 전술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참전 여부 결정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월 전쟁 개시 이후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했지만 직접 참전은 거부해 왔다. 정치적 입지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루카셴코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매우 인기 없는 조치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는 이미 러시아를 광범위하게 지지해 왔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확전을 대비하는 모양새다. 그는 심야 연설에서 "벨라루스군의 현재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우리 군의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며 "가능한 모든 방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의 향방은 종종 이뤄질 푸틴 대통령의 '중대 발표'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군이 특별군사훈련을 거쳐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진격, 수도 키이우를 다시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VI. 인간론 (3)

E.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구절들

1. 데살로니가전서 5:23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여기에서 인간의 비물질적인 요소들을 혼과 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비물질적인 것)을 혼과 영이라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한다. 영과 혼은 서로 혼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인간의 속 사람을 혼 혹은 영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전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마 22:37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만약 살전 5:23을 통해서 인간의 요소를 영, 혼, 육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사람의 구성요소를 다섯, 여섯, 혹은 그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영과 혼이 다른 요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비물질적인 부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기를 원하고 있다.

2.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찢러 쪼개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인간의 내면적 세계, 혹은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 깊숙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를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각각 다른 요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한다. 영과 혼의 다른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존재의 다른 표현들이다.

3. 고린도전서 14:14-15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πνεῦμα)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νοῦς)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은 영의 기능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깨닫는 기능은 마음(혼)의 기능이라는 뜻이 아니다. 바울은 영으로도 기도와 찬송을 하고, 마음(혼)도 기도와 찬송을 한다고 했다. 이 본문은 바울이 기도할 때에 속 사람(영혼)이 기도하는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내면적인 존재, 속 사람이 영과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 영의 기능만이 기도와 찬양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F. 불신자에게 영이 있는가? 불신자들의 영은 중생 때에 살아나는가?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3)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인간의 영이 (spirit)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 때는 죽어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는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들을 지적한다.

단 5:20, "그가 마음(heart)이 높아지며 뜻이 (spirit) 완악하여 고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But when his heart was lifted up and his spirit was hardened so that he dealt proudly, he was brought down from his kingly throne, and his glory was taken from him).

악한 느브갓네살의 영이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켰다. 분명히 불신자에게도 영이 존재한다. 이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다.

신 2:30,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 (spirit)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But Sihon the king of Heshbon would not let us pass by him, for the Lord your God hardened his spirit and made his heart obstinate, that he might give him into your hand, as he is this day). 악한 헤스본 왕 시혼의 영이 완악하게 되었다. 불신자에게도 영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영이다.

롬 8: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영 (spirit)이라는 요소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한 인격체로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가 회복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다.

G. 삼분설의 위험

벌코프의 조직신학의 인간론을 의하면 영과 혼 그리고 육신이 우리의 속 사람의 요소로서 존재한다는 삼분설은 헬라 철학에서 유래했다. "물질적인 우주와 절대자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 주는 제3 매개체인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by means of a third substance or an intermediate being). 이것은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혼(soul)"이 영과 육신을 연결 시켜준다 (by means of a third or intermediate element, namely, the soul).

헬라 철학적인 개념에서 영의 세계만 중요하며, 육신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육신을 포함한 전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인간 전체가 귀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고, 복을 주셨다.

그리고 삼분설은 반지성적 경향(anti-intellectual tendency)이 있다. 만일 우리의 영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하고, 영은 우리의 지, 정, 의의 영역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학업과 연구를 비롯한 모든 지적 활동은 신령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반지성적인 기독교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하라" (고후 10:5)의 말씀과는 모순이 된다. 영의 세계와 지성의 세계를 분리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이 모두 신령한 일이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교회 생활,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선교, 교회를 섬기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 삶 전체가 신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고, 루터는 유전설을 선호한다. 18세기 칼빈주의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도 유전설을 선호한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창조설을 지지한다.

유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헬기 세대를 만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몸에 존재했다고 믿는다. 히 7:10, "레위는 아직도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을 때" 유전설은 인간의 원죄가 하나님께서 죄의 영향을 가진 영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로부터 직접 유전되어 전가된다는 설명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창조설이 더욱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창조설은 많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시 127: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으로 태어날 때 그의 상급이다."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준다.

시 139: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의 육신과 영혼은 모태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의 선물임을 말한다.

스가라 12:1, "여호와 곧 하늘을 피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의 심령(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임을 증거한다.

I. 죄 (Sin)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죄가 무엇인가?

그루렘의 의하면, "죄는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in act, attitude, or nature)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과의 관계에서(in relation to God and his moral Law)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죄는 행동만 (거짓말, 도둑질,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마음의 태도나 생각을 비롯해서, 죄에 대한 경향성 (inclination) 까지 포함된다. 심계명에서도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 20:17). 음욕 (마 5:28), 질투, 분노, 이기심,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the desires) 까지 말한다 (갈 5:16-21).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짓도록 하는 경향성 혹은 죄에 대한 욕망까지도 죄가 된다.

(다음 시간에는 아담의 죄와 나와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KHL0206@gmail.com

Large advertisement for '해외 교회' (Overseas Churches)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header includes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d '해외 교회'.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2)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1. 저자의 의도

1) 본서의 저술 계획에 대한 백스터의 언급

백스터 자신이 쓴 서문에 보면 그가 본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말한다. 그는 어셔(Usher) 주교를 통해서 서로 구별되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위한 안내서를 써달라고 끈질기게 강권 받았지만, 그때에는 쓰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 비회심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신자들과 성숙한 신자들, 그리고 이들이 빠져 있는 습관적인 여러 가지 죄악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도움에 대한 책을 쓰고자했다. 그가 이 작품을 쓰는 일을 미루어 왔었지만, '가족지침서'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그 작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여러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사람들의 영혼의 여러 가지 상태가 언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2)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글을 써 나가기로 결심했다.

- (1) 아직 회개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이나 적어도 아직 회개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죄인들에게 대해, 단순한 지침을 주는 것보다는 설득력 있게 깨우는 작업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거기에 순종할 자세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람들은 예복소서 4장 19절에 기록된 '정욕으로 자신을 죄에 넘겨준 사람들처럼 고집이 세고 죄악 가운데 잠들어 있는 자들이다. (2) 회개할 의도를 조금 가지고 있거나 회개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다시 태어날 때 유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참된 회심을 위한 안내를

해줄 것으로 믿었다.

(3) 어리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 그들에게 그들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침을 주려고 하였다.

(4) 죄에 빠지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시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려고 하였다. 어떤 특별한 시대적인 잘못들과 어떤 일반적인 치명적인 죄에 대항하도록 하는 짧은 설득과 지침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3) 본서의 목적에 대한 백스터의 언급

그가 이 책을 쓰는 것과는 같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1) 만일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이나 종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가족 내에서 이들에게 종종 이 책을 읽어 주려고 하는 부모들이나 종들을 위해서이다.

2) 이 책을 읽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모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3) 이같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필요한 이 책을 선물하려고 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4) 순서

백스터는 회심을 위한 전제와 많은 질문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논증으로 그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 백스터는 열 개의 장을 통해서 1.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드리는 경고, 2.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선언, 3.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죽음, 4. 악인이 회심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5.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6. 의심할 여지없는 진리, 7.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8. 회심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시는 하나님, 9. 회심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자신의 책임, 마지막 10장은 회심하려는 이들에게 드리는 지침을 설명하고, 끝으로 부록에서 다섯 편의 기도문을 말한다.

1장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드리는 경고 (1)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는 여러분으로 육신의 정욕과 거짓된 세상을 좇아 살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기 전의 상태, 즉 여러분이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에 걸맞은 상태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1) 사역자들을 통해 비 회심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일이나 겪어야 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영원한 것들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용감하게 죄를 짓는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이 없이 사는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얼마나 소홀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부정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신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보아야 소용이 없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악되고 비참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어 말하게 하며(고후 5:19), 여러분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곧 보게 될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할지 전하게 하셨다.

(1)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속적인 관심사와 쾌락에 빠져 있으며, 유치한 장난감 같은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여러분의 짧고 귀중한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

에 낭비하고 있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크게 해서 여러분의 죄와 악들을 보여주도록 우리 설교자에게 명령하셨다(사 18:1,2; 딤후 4:1,2).

(2) 여러분의 거부는 설교자를 가슴 아프게 한다

왜 이렇게도 여러분의 마음은 완악한가? 우리 설교자들은 그들이 느끼도록 하기위해 심각하고 가슴을 찌르는 단어를 선택하려고 노력해도 그들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만일 가장 두려운 것이 효력이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들에게 겁을 주어서라도 그들이 자신의 악명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진리와 성실이 그들에게 효력이 있다면 우리는 곧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천국에 계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조차 그들이 무시한다면 누가 그들을 회심시키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지? 만약 구속자의 경망이 없는 사랑과 보혈이 증거된다면 그 무엇이 가치가 있겠는가? 만약 그들이 지옥에서 견딜 수 있고 무저갱에서 영원히 춤을 추며, 소멸하는 불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3)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다시 한번 천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다.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빠져 있고 육신과 사단의 종이 되어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지상에서의 변역을 찾는 데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가장 나쁜 것처럼 여기고 있음으로 인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라.

younsuklee@hotmail.com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2)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

한부모 사역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겨 섬긴 지금,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 생각할 때 역시 신앙에 반듯하게 서도록 돕는 것이 같 습니다. 물론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힘껏 노력해 살아가는 숨쉬는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신앙 성장의 세 가지 요소로 말씀, 기도 그리고 고난이라고 한다면 한 부모들은 혼자가는 과정속에 이미 고난과는 친숙해진 만큼 말씀과 기도, 곧 신앙 훈련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육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신체 훈련이 필요하다는 신앙 또한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성경읽기와 기도하기에 친숙해질 것인가를 알아보면, 일단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감당하라'가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에 대해 생각하던 중에 지난번 수양회에서 했던 '간증대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간증일 텐데 거기에 무슨 잘나고 덜 잘난 게 있어 대회라는 말을 쓰는데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속 깊이 있는 것을 끄집 내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텐데 결코 입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시도한 방법이었습니다.

신앙은 나누어야 자란다는 것을 강조하며 격려 차원에서 상품을 준비하고 간증자 전부에게 조그만 종이를 주어 가장 은혜로웠다고 생각되는 세 사람을 선정해 번호로 쓰도록 했습니다. 의외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치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에 나온 어린이들처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이야기를 하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우리 인간에게 승부욕이라는 게 떠나지 않는 것 을 느끼면서요.

이런 식으로 매달 모임 때, 지난 한 달 동안 말씀 몇 장을 읽었고 기도를 전부 몇 시간 정도 했는가를 기입해서 제출할 때 숫자가 많은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모임에 와서 예배보는 것만을 거의 전부로 하던 분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밖에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기독교 서적을 선정해 읽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또한 유익할 겁니다.

다음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성도가 되도록 선교에 동참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몇몇 선교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심시일반(한술 덜 먹고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밥이 나온다는 뜻)으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님의 나라 확장에 정성을 기울이게 한다면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 3:5-8)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부모 인도자들께서 참여자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 으르써 삶의 윤택함을 누리게 한다면 진정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Each cell includes a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details. The bottom row features a common footer for each church: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한 성도님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지난주부터 갑자기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TV 볼륨 소리를 크게 높여도 겨우 작게 들립니다. 아무래도 청각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의 걱정을 염려해 주며 함께 기도하고, 빨리 이

비인후과 병원에 가서 원인을 알아보고 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오른쪽 귀가 얼마 전부터 들렸다 안 들렸다 하더니 갑자기 지난주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성도님의 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귀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냅니다. 귀박이였습니다. 성도님의 귀에서 커다란 귀박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념 선물이 될까요?"라고 농담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잘 들리세요?"라고 하자 성도님은 책이 해 하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네. 선물로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성도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염려, 근심,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에 환한 기쁨의 미소가 되찾아 왔습니다. 성도님은 자신의 귀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치통에 의해서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병들을 상상하며 걱정하

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미리 근심에 싸여 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느낄 때 내 안에 사소한 장애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은 나의 교만, 나의 아집, 나의 경험, 나의 선입견, 나의 무지, 나의 불신앙,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참가지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사소한 것들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고 상처를 받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오직 한 분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삶에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던 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새해에 새 소망과 새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songpkak@hotmail.com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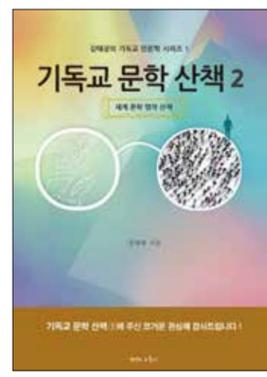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가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연말연시 생명의 빵 나눔 운동도 전개

'기독교 문학 산책'을 발간한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목사가 본사를 방문하여 책소개와 함께 우크라이나 돕기에 대해 소개했다.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연말연시 생명의 빵 나눔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입을 여는 강태광 목사. 그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먼저 들려준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후 10개월이 지났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수많은 사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간 시설의 파괴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삶은 너무 어렵습니다.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경제와 에너지 부분에서 심각한

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파괴와 시가지 전투로 집을 나온 피난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지난 9월부터 키르치 목사가 겨울나기를 위한 특별 지원을 월드쉐어USA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화재로 집이 전소된 군종목사(Chaplain) 가정과 남편도 없고, 직장도 없고 친정집마저 전소된 전쟁미망인(War-widow) 등의 막대한 형편을 전해들은 월드쉐어 USA는 우크라이나 돕기에 속력을 내고 있다고 전해



주었다. 월드쉐어USA는 매년 연말연시와 사순절 기간에 '생명의 빵 나눔 운동'(Sharing Bread



for Soul)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한다. 생명의 빵 나눔(Sharing Bread for Soul, 이하 SBS)운동은 단순한 구호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프로그램이다. 빵(Bread)과

복음(Bible)을 동시에 전하는 B&B 프로그램으로 아동들과 저개발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아이티 소망학교와, 수리남 파라마리보 지역 고아원들을 섬기는 SBS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한편 월드쉐어 USA 강태광 대표는 새로 발간된 '기독교 문학 산책 시리즈 2'를 선보이며 본서의 판매 수익금은 아이티 소망학교, 교회당 건축에 사용된다고 출간 목적을 설명했다. "곧 책 판매 수익금 1만불 전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를 출간하여 아이티와 수리남의 교회당 건축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오월에는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과 바울의 생애'를 출간할 예정이고 내년 연말에는 기독교 문학 산책 1, 2권에 이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정리한 기독교 문학 산책 3권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며 교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월드쉐어USA 문의는 (323)578-7933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시라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비스산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기사판

2023 보스톤 목회자, 사역자 능력기도회

2023 보스톤 목회자, 사역자 능력기도회가 보스톤주님의교회(담임 박찬수 목사)에서 1월 9일(월) 오전 9시 30분에 이상목 목사(이여리한장로교회)를 강사로 열렸다.

▲문의: 617-969-0507

버지니아 서울장로교회 초등부 교역자 청빙

워싱턴 DC 근교에 위치한(버지니아 페어팩스 스테이션) 서울장로교회(담임 강선웅 목사)에서 주일학교 초등부 교역자(Full-Time or Part-Time)를 청빙한다. 모집분야: 초등부(1-6학년) 교역자 담당사역: 주일학교 총괄 디렉터, 초등부, 예배지원 지원자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재학중이거나, 졸업, 분명한 소명의식, 영어설교가 가능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회주소: 6428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문의: 신현철 목사 jeliinne@gmail.com

뉴욕 은혜교회 장년사역 담당 부목사 청빙

뉴욕 리틀렉 위치한 은혜교회(KPCA, 담임목사 이상훈)에서 장년사역을 신실하게 담당할 전임(Full-time)사역자를 청빙한다. 지원자격: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교를 졸업하신분 (M. Div 소지자), 미주한인교회에서 장년사역 경험자,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학위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최근 설교영상 1편 제출 기한: 2022년 1월 31일까지 주소: 43-37 249 Street Little Neck, NY 11363

▲문의 및 제출처: 718-428-1447, eunhaechurch2021@gmail.com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와 교직원, 선교회원 등이 사랑의 바구니 제작 후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2022 "사랑의 바구니" 전달

22년째 계속된 사랑의 바구니, 경찰서, 소방서 등 이웃 커뮤니티 기관 방문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22년째 연말마다 지역 사회에 전달하는 '사랑의 바구니' 행사가 올해도 계속됐다. 9.11사태로 슬픔에 싸인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시작된 이 행사는 22회를 맞아 지역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 양로원, 어려운 불우이웃과 주민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올해는 총 120개의 바구니를 퀸즈장로교회 교직원들과 선교회원들이 당일 오전부터 모여 사랑의 바구니를 제작했으며 오후에는 교직원 일동이 플러싱 유니온가에 위치한 109 경찰서, 273 소방서, 너싱

홈 이웃 커뮤니티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랑의 바구니를 전달했다.

김성국 목사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이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의 바구니를 준비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교회인데 다민족들이 같이 살아가는 이 플러싱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사랑의 바구니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교협 제49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제 49회기 뉴욕교협 회장, 부회장 및 임·실행위원, 37대 이사장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2월 18일 오후 5시 뉴욕 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합 2:14)을 표어로 출발한 제49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 장로교회)는 "49회기 이제 출범하니 축복해 주기 바란다"며 "어떤 조직이든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49회기 교협 임원들은 굴림하지 않고 봉사에 힘을 다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임하는 제48회기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는 "고전 15:10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다"고 전하며 "이준성 신임회장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쁨 속에 평안 속에 한 회기의 길을 잘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회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임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 끝으로 옆으로 사람과의 화목인데 화목이 되는 49회기가 되어서 교협을 빛내주기 바란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조동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이사회에 있으면서 이준성 장로님과 김태일 이사장님한테 많이 배워서 그분들이 한 좋은 사업을 이어가고 특별히 이준성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평신도부회장 김일태 인도로 경배와 찬양 (아도나이 찬양팀), 대표기도 전광성 목사(세미나기회위원장),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선거관리위원장), 특송 안지원 형제(테너), 말씀 박희소 목사(증경회장), 헌금송(특주)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헌금기도 조동현 장로(이사장), 축도 황경일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박희소 목사는 "좋은 교회 모델"(행 2:42-4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초대교회를 본으로

한 좋은 교회 조건은 첫째, 좋은 지도자를 가져야 한다. 둘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셋째, 좋은 소문, 평판이 널리 퍼져야 한다. 넷째, 성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본문 말씀 중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를 힘있게 선포했다.

2부 이·취임식은 총무 유승례 목사 사회로 시무기도 박준열 목사(원주민 선교분과위원장), 교계기 인계, 이임사 김희복 목사(이임회장), 취임인사 이준성 목사(신임회장)와 조동현 장로(신임이사장), 취임축가 한문섭 장로(뉴욕선한목자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격려사는 허길 목사(증경회장), 이만호 목사(증경회장단 의장)가 축사는 김동권 목사(뉴저지교협 부회장), 유상열 목사(뉴욕교역자연합회 회장)가 권면은 허상희 목사(KAPC 가든교회 부회장)와 정순원 목사(증경회장)가 맡았으며 이일성 장로가 팬플렛 특별연주를 했으며 축가는 이현경 자매(소프라노), 케리그마 남성중창단이 찬양했다.

이어 임원소개가 있었는데 부회장 이기용 목사와 김일태 성도, 총무 유승례 목사, 서기 김홍배 목사, 부서기 양미림 목사, 회계 송운섭 장로, 부회계 박항우 목사, 협동총무(수석) 김희숙 목사·박시훈 목사가 소개됐고 위촉장은 실행위원 대표로 허윤준 목사(기획위원장)에게 수여했고 감사패는 김희복 목사, 임영건 목사, 김정길 목사, 김일태 이사장에게 수여했다.

이어 회장 취임 감사인사 서성호 피택장로(뉴욕양무리장로교회), 광고 김홍배 목사(서기), 폐회 및 만찬기도 전희수 목사(여성목회자협력분과위원장) 순서로 마쳤다.

뉴욕교협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조동현 장로, 부이사장 곽우천·강병철 장로, 감사 김재룡 목사·김영철 목사·이준성 장로로 구성했다.

(홍현숙 기자)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예배 순서자들

지역교회부흥선교회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예배

지역교회부흥선교회(대표 허윤준 목사)는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예배를 12월 15일(목) 10시 30분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시무)에서 열었다.

1부 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시작, 정인수 목사(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장)가 대표기도 했으며,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 "하나님이여 생이여 (시편 63: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허목사는 "사모들에게는 영적인 장로가 팬플렛 특별연주를 했으며 축가는 이현경 자매(소프라노), 케리그마 남성중창단이 찬양했다.

이어 헌금기도 김희숙 목사(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

합회 회장), 헌금특송은 송금희 강도사와 김봉규 목사가 찬양했다. 축하의 말씀은 이준성 목사(교협회장), 격려의 말씀은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자훈련원 원장)와 김원기 목사(뉴욕메디슨교회 담임), 감사의 말씀은 소의섭 목사(뉴욕원로목사회 부회장), 축도 정관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성탄축하찬양은 G to G (박승호 집사와 이성이 집사)의 진행으로 '행복, 탄일중, 눈, 징글벨'을 함께 찬양하며 '메리크리스마스'를 다 함께 외쳤다. 이어 이용걸 목사의 부인전에는 사모와 처제 전애실 사모가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단장 박영희 권사, 지휘 이진아 목사)의 연주 순서로 진행됐다.

3부 목회자, 교역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규준 목사의 자녀 장의기 군과 이은수 목사의 자녀 이기쁨 군이 수여했다. 이어 이만호 목사(교협증경회장)의 합심기도 후 식사기도는 이병호 목사(교협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홍현숙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회원들이 제13회 정기총회 후 함께 단체촬영을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13회 정기총회

황규복 장로 회장 연임, 전도와 선교에 중점 두는 회기 되길 원해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 제13회 정기총회가 12월 19일(월) 오후 5시 산수갑산2 식당에서 열려 현 회장 황규복 장로가 연임됐다. 회원들은 회장 황규복 장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만장일치 박수로 회장 연임을 추천했다. 20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진행된 회무에서 총무 이주수 장로, 서기 김요한 장로, 회계 이광도 장로 등이 지난 회기를 보고했다.

지난 회기는 신년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9차 다민족선교대회, 매월 1회 목요초찬기도회 등 연례사업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목사장로 환상의 조탁구대회, 그리고 제1회 목사님 감사의 날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팬데믹이 회복됨에 따라 재정도 2021년

\$38,251에서 \$60,222로 늘었다. 특히 다민족선교대회에서는 \$33,502 수익금 중에 참가자에게 \$7,000 선교후원과 더불어 니과라과 이명자 선교사에 \$5,000을 후원했다.

회무를 통해 김재관 장로와 흥대순 장로를 감사로 선출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 회기를 표현했던 회장 황규복 장로는 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세대연합"의 열매가 있었던 지난 회기를 돌아보고 "전도와 선교에 중점을 두는 회기가 되길 원한다"라고 인사했다.

또 새로운 회원으로 뉴욕소망성결교회 천일웅 장로가 소개됐다. 천일웅 장로는 변호사로 내년 봄에는 은퇴 및 상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미션콰이어가 유니온널싱홈에서 성탄 찬양을 부르고 있다



뉴욕교협 제49회기 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욕미션콰이어, 어르신들께 짝짝 성탄 음악선물 '선사'

플러싱 유니온 널싱홈 방문해 찬양과 함께 위로의 시간 가져

노환으로 바깥거동이 불편한 병상 어르신을 위해 '뉴욕미션콰이어'가 성탄음악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지난 2월 13일(화) 오전 10시에 멀티약기 연주자 제시 유 교수가 감독으로 있는 뉴욕미션콰이어 음악팀이 플러싱에 있는 유니온널싱홈 9층을 방문, 오랜 병상에 지친 노구의 어르신들에게 짝짝 성탄선물을 선사했다. 10명의 여성 합창단원과 남성단원들을 포함 총 16명의 음악팀은 찬송가와 성탄 관련 노래, 가곡과 캐럴 송을 엮어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하며 병상 어르신들 위로를 전했다. 이날 공연은 뉴욕미션콰이어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은총입어', '짚타루치아 & 메기의 추억'을 비롯해

또 소프라노 사라 윤과 테너 영환 김 듀엣으로 '거룩한 성'을 노래한데 이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시유 플루트 솔로), 합창단원이 부르는 '징글벨과 루돌프사슴', '고요한밤 거룩한밤', '기쁘다 구주오셨네', '할렐루야' 등 곡들로 끝을 맺었다.

이날 사회는 다니엘 송 장로가 순서진행을 맡았으며, 피아노에 헬렌 김 씨, 첼로에는 앤드류 김 교수가 맡아 수준높은 연주를 선사했다. 기기도를 맡은 최윤섭 목사는 성탄을 앞두고 유니온널싱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했다.

한편 뉴욕미션콰이어는 성탄 전날인 24일 오후 6시 퀸즈 플러싱 150가 케익하우스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힐링콘서트를 마련해 예수탄생의 기쁨을 한인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12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목)~2(금) 청주 갈보리 축복교회 (김영순 목사) 010-8434-0154
5(월) 오전 제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정소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6(화) 오전한미연합부흥성회(사단) 사명자성회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7(수) 오전 한미연합부흥성회(사단) 사명자성회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8(목)~9(금) 오전 미스비금시기도원 (원장 서순환)
9(금) 저녁 춘천 하누리교회 (홍준열 목사) 010-7203-3678
10(토) 오전 국민일보 (회장 조인재) & 재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운영총재 한영훈 목사) 국민대(사상) 010-2009-7272
11(일) 오전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찬교 목사) 임직사(02) 3411-9191
12(월) 오전 서울누가신대교회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13(화)~14(수) 강남급시기도원 (원장 최동민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15(목)~16(금) 구미 방주교회 (강영신 목사) 010-8280-0346
17(토)~18(일) 서울대학교 ABKI 정소 동대문 메리어트호텔 대전 새길교회(김정호 목사) 010-9588-9284
19(월) 오전 서울신학교 (학장 김춘환 목사)
주최: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정도훈 목사) 010-7567-8291
20(화)~21(수) 서울강남 반석교회(강사광 목사)010-8331-3431
22(목)~23(금)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대표총재 한정수 목사)010-8082-9569
24(토)~25(일) 국제신학교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26(월)~27(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임직사 (총회장 김남익 목사) 010-6663-3310
28(수)~29(목) 서울 무지개교회 (이우재 목사) 무지개 선교회 18주년 기념예배
30(금)~31(토) 서울강남 반석교회(강사광 목사)010-8331-3431
32(일)~33(월) 김포 감리교회 (조경숙 목사) 010-8222-1992
34(수)~35(목) 제주 컨퍼런스 주최 한국교회 예배회복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36(토)~37(일) 한울산기도원 (원장 이영균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부흥단체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38(수)~39(목)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찬교 목사) 02) 3411-919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OC교협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제32차 OC교협총회 열고 모든 임원 연임결의 “영적중심을 잡아주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는 제 32차 총회를 15일(목) 오전 10시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었다. 이날 총회는 2022년 회기를 함께한 총회임원을 연임하기로 결의했다. 심상은 목사는 “연합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무한 상태에서 회장이 되어 어떻게 교협을 이끌어갈지 고민이 되었다”며 “기도하는 가운데 OC지역의 모든 기관의 리더들과 함께 교협사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 목사는 “함께 시작한 사역에 모든 기관들이 협력과 헌신을 잘해주었다.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서 교회들이 영적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중심으로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 영적으로 깨어진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사역했다. 3050 목회자들을 불러 함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에는 어떻게 하면 오렌지카운티 모든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헌신해 나가겠다. 차세대들은 물론 3050목사들을 비롯한 젊은 목사들이 개척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음 알게 되었다. 많은 분

들을 만나 교제하고 2차기도회를 열어 많은 기관 성도들 함께 영적분위기를 이어나고 영적세미나, 다민족기도회 등 계속해서 영적분위기를 강화시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 영적중심을 잡아주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은 회장 사자로 시작된 총회는 김기동 증경회장(세리토스총만교회)이 기도했으며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의록서기 임명, 회순통과, 추석근 목사의 사역보고, 김영찬 목사의 감사보고, 티나정 전도사의 회계보고, 신원규 이사장의 이사 회보고, 32대 회장단 인준,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증경회장 민경엽 목사가 폐회기도를 했다. 한편 총회가 열리기 전 총무 추석근 목사 사자로 시작된 예배는 부회장 김생수 장로(남가주중신교회)가 기도했으며 이사장 신원규 목사(좋은마을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엡 4:12-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증경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축사했으며 증경회장 윤성원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로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주일에배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자”

은혜로교회(담임 김경환 목사)는 창립 19주년 감사주일에배를 18일(주일) 예배시간에 배를 18일(주일) 예배시간에 가졌다. 김경환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오전 8시 1부 예배는 이창현 장로가 기도했으며 실로암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경환 목사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경환 목사는 “창립 19년을 맞이하는 은혜로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처음 담임목회를 시작할 때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기다려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며 담임목회를 잘할 수 있게 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목사는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며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

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 이루며 살았는지에 관심 있어 하신다. 은혜로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목사는 “오늘은 은혜로교회 창립 19주년이다. 미국에는 18세 19세가 되면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나기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은혜로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의 비전 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격려 받고 주변교회에 분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김경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은혜로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주일에배에서 김경환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고 강영석 성화장로교회 원로목사 천국환송예배가 열렸다. 사진 우측위 네보안은 고인의 유가족

성화장로교회 고 강영석 목사 천국환송예배

“평생 선을 행하며 복음 전하는 삶의 모습 본받아야”

성화장로교회 고 강영석 원로목사 천국환송예배가 17일(토)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동진 담임목사 집례로 열린 천국환송예배는 조수환 장로가 기도했으며 찬양대가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곡인 ‘거룩한 성’을 불렀다. 이어 이동진 목사가 ‘내가 그로라(요 4:24-2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성열웅 장로가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으며 ‘목사님의 삶’이라는 제목의 고인의 삶을 담은 영상소개, 총신 61기 동기 일동의 특별찬양, 송영남 집사의 추모사 낭송이 있었다. 이어 고인의 장남 강선구 안수집사가 인사했다. 이날 예배는 윤성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동진 목사는 “천국환송예배를 집례하면서 천국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목사님은 평생 선을 행하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복된 삶을 사셨다. 참 거룩의 삶을 사신 목사님처럼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 강영석 목사는 1941년 2월19일 경북선산에서 출생했으며 2022년 12월12일 토론토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입성했다. 1969년 5월 예장합동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같은해 9월 이화미 사모와 결혼했다. 목회경력 1963년 서울창신교회에서 전도사와 강도사 사역을 했으며 1970년 부산 부전교회, 1972년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 교회에서 사역했으며, 1983년 헤브론교회 담임, 2004년 성화장로교회 설립하여 담임으로 목회했으며 2015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강희미 사모, 장남: 강선구(부인 혜영), 장녀: 강소혜, 차남: 강형구(부인 지유), 손자: 성진, 성현, 손녀, 성인이 있다. (박준호 기자)



이주철 사관이 자선냄비 중을 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몬트레이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지역에 위치한 몬트레이사랑의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조건은 정규신학대학원 M.Div. 이상 학위를 받은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한 합법적 미국체류자,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건강한 목회 경력이 있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가족사진 포함), 학력증명서 사본(대학, 대학원),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추천서 2통(추천자의 이력과 연락처 기재), 목회 비전 및 목회계획서, 최근 설교 동영상 또는 링크(2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tk8976@gmail.com

선한목자교회 성탄음악예배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성탄음악예배를 24일(토) 오후7시에 갖는다. 이날 예배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1부 ‘예언과 탄생’이 연주된다. 출연진은 본교회 연합성가대와 챔버오케스트라(지휘 김원재), 소프라노 이지은, 엘토 조지영, 테너 오위영, 바리톤 채홍석 등이다. ▲ 문의: (909)591-6500

LA사랑의교회 교회탄생 16주년 감사 및 성탄축하예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교회탄생 16주년 감사 및 성탄축하예배가 25일(주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 문의: (213)386-2233

베델교회 성탄절 창작 뮤지컬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성탄절 창작 뮤지컬 ‘내 삶 속의 마구간’을 23일(금) 오후 7시30분에 공연한다. ▲ 문의: (949)854-4010

LA, 빈방 있습니까?

성탄 뮤지컬 ‘LA, 빈방 있습니까?’가 23일, 24일 여디디야 교회(담임 양영준 목사, 13820 Studebaker Rd. Norwalk)에서 공연된다. 지난 16일과 17일에 이어 열리는 이번공연시간은 16일(금) 오후 8시, 24일(토) 오후 4시이다. 입장료는 20달러 ▲ 문의 : (909)702-8486 / Venmo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임직식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시무장로 & 시무집사 임직식을 25일(주일) 2부예배시간(오전 9시45분)에 갖는다. ▲ 문의: (310)618-2222

성화장로교회 새해감사 온마음예배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새해감사 온마음예배를 1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오후 7시에 개최한다. 강사는 정공필 목사(라스베가스장로교회)이며 4일(수)은 제직수련회를 겸해서 연다. ▲ 문의: (213)447-3118



퓨리탄신앙승리 334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퓨리탄신앙승리 334주년 기념 축제 열려

이완재 박사 “복음의 방법,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

퓨리탄신앙승리 334주년 기념 축제가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대표 이완재 박사) 주최로 지난 12일(월) 오전 10시30분 동부장로교회(김정오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축제는 김창호 목사(홍보 담당)의 사회로, 신앙고백, 찬송가 25장, 십계명을 통독한 후에 심진구 목사(진교 담당)가 대표로 기도하고, 이완재 박사가 ‘변성하는 영적 꽃 동산(골 2: 13, 사 51: 3)’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

다. 이완재 박사는 “복음의 방법이란 성경주위에 매여서 성경적인 삶을 살면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적인 삶이다. 그리고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온전해지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완재 박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LA 한인타운 자선냄비에 1만달러 성금

지난 13일 LA한인타운 갤러리아 마켓 앞 구세군 자선냄비에 1만 달러 체크를 써서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는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다. 자선냄비에 운영하고 있는 구세군 나성교회 이주철 사관은 “2020년 두 분의 기부자께서 만불씩 자선냄비에 성금을 보내주셔서 코로나 시국에 힘든 지역 사회 여러 가정에 도움을 손길을 드렸던 적이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기부자가 없나 했더니 자선냄비가 끝나갈 무렵 만 불의 성금을 보내 주신분을 발견하게 된적이 있었다”며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장례비로 사용하려고 모아두셨던 돈을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감동의 사연을 운영하고 있는 구세군 나성교회 이주철 사관은 “2020년 두 분의 기부자께서 만불씩 자선냄비에 성금을 보내주셔서 코로나 시국에 힘든 지역 사회 여러 가정에 도움을 손길을 드렸던 적이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기부자가 없나 했더니 자선냄비가 끝나갈 무렵 만 불의 성금을 보내 주신분을 발견하게 된적이 있었다”며 “그분은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신용현 회장 연임기로

“회원 배가운동에 더 힘을 쏟을 것”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 집사)가 지난 10일(토) 에반겔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43차 정기총회 및 12월 조찬기도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신용현 회장의 유임을 결의했다. 총회 차기회장선거에서 신용현 회장의 연임을 참석자 전원 박수로 의결했고 신용회장은 “부족한 사람을 잘 바꾸신 이사, 자문위원,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는 회원배가운동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우경 이사장은 “올 한 해 수고한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올 해는 어느 해보다 교계와 연합이 잘된 해였다. 무리없이 올 해를 이끌어 온 신용현 회장에 다시 일 년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하며 참석자의 박수를 이끌어 내 신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이날 설교에 나선 한기원 목사는 “잔인한 하나님(창세기 22:1-2)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다. 한기원 목사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잔인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더욱 잔인한 분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인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아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신 그 희생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했고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할텐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받은 생명과 감사를 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소망을 주는 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연합회는 선교사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2023년 1월 14일(토)에 신년하례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육아에 지친 미혼모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유정환 오은영 부부, 자사 제품 오은키즈버블클렌저 350 세트 베이비박스에 기부

오은라이프사이언스(대표 유정환 대표)는 16일 자사 제품인 오은키즈버블클렌저 350 세트를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운영자 이종락 목사)에 후원했다.(사진) 후원물품을 전달한 이 단체

배승호 이사는 “베이비박스 상담을 통해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한 가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 이사는 유정환 오은영(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 부부의 말을 전하며 “스토

리가 담겨 있는 코스메틱 제품을 통해 육아에 지친 미혼모가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베이비박스 운영자 이종락 목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정환 오은영 부부를 응원한다”고 답했다. 이종락 목사는 위기 영아의 생명을 위해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난곡로 교회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위기 영아의 생명을 보호했다. 베이비박스에 온 아기 엄마와 아빠 96%를 만나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했다. 올해 25%의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키우고 있다.

400여 명의 미혼 한부모 가정에 매월 1~2회 3년간 양육 키트와 생계비, 의료 및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독교청소년사역자상 첫 시상식 열렸다

“다음세대 돌보는 사역자 찾아내 힘 실어줄 것”

현장에서 묵묵히 다음세대를 돌보는 사역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이 제정됐다.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제1회 기독교 청소년사역자상이 수여됐다. 청소년사역자협의회(회장 박현동 목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동분서주한 사역자를 대상으로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는 제1회 기독교청소년사역자상을 제정해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식은 서울 강남구 남서울중 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지난 13일 열렸다(사진). 교회청소년사역자상에는 허용석 천안 모퉁이교회 목사가 선정됐다. 허 목사는 “8년 전 16.5㎡ 크기 교회에서 시작

해 청소년을 섬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장청소년사역자상을 받은 반승환 서울브리지교회 목사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문화와 사역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도서출판자상은 김성중 장로회신학대학교수에 돌아갔다. 김 교수는 올해 ‘어쩌다 교사’(두란노)를 펴냈고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의 내일이 있다’(동연)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특별상인 김용재상은 최연수 한빛청소년재단 목사가 받았다. 김용재상은 넥타선교회 대표, ‘다음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 대표를 역임하며 전국 중·고등부 청소년 연합 수련회 등을 개최하다가 2020년 53세 나이로 별세한 김용재 목사를 기리는 상이다. 기독교청소년 사역자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미래교회연구소 문재인 목사는 “교회와 교회 밖, 학교와 학교 밖, 가정과 가정 밖 등 청소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사역자를 찾아내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며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회복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과 사회는 물론,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자”고 권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빈부격차, 노사갈등, 여아의 극한 대립, 경제 침체와 전쟁, 기근, 이상기후 등 절망적인 이야기만 가득한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된 것처럼 희망이 임하기를 바란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총 “회복과 평화, 희망 꿈꾸는 성탄절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희망이요 소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이 온누리에 평화와 희망이 깃들길 기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탄절 메시지를 19일 발표했다. 이영훈 대표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탄절 메시지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겸손과 겸근, 회복과 평화 그리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

한다”면서 “극단적 편 가르기로 갈등과 대립의 사회가 됐다”면서 “단절을 넘어 화목하고 연합해, 일치와 통합의 역사를 이루고 평화 통일시대를 열어가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회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 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길 기도한다”



“비종교인은 그대론데요, 가나안 교인은 늘었습니다”

한국, 가나안교인 4명중 1명 “성도 개개인 신앙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종교를 버리는 ‘탈종교화’ 물줄기가 바뀐 걸까. 한때 부쩍 늘던 미국의 비종교 인구 비율이 주춤하는 분위기다. 한국의 비종교인 비율 역시 이렇다 할 증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종교인 비율 둔화 추세에도 전문가들은 탈종교화 현상으로부터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갤럽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비종교인 증가세 둔화(Slowdown in the Rise of Religious Nones)’를 통해 미국 내 비종교인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종교인 비율은 1950년까지만 해도 1%를 밑돌았다. 그러나 1972년 5%를 돌파했고,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2년에 10%를 넘어섰다. 비종교인 비율이 두 배로 경증 뛰는 데는 불과 15년이 걸렸다. 2017년 미국의 비종교인 비율은 20%대에 진입했다.

한편 한국의 비종교인 비율도 큰 굴곡이 없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2년 종교인구 현황’을 보면 2018년 이후 비종교인 비율은 50% 내

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3대 종교 비율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이후 개신교 신자는 20%, 불교 신자는 17%, 천주교 신자의 경우 11%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종교인 비율이 거의 똑같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일례로 ‘최근 1년 사이 교회에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답한 개신교인은 12%에 달했다. 그럼에도 개신교 인구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무종교 인구의 유입 덕이다. 무종교 인구 가운데 4%는 ‘1년 전에는 종교가 없었으나 현재는 있다’고 답했다. 무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약 47%)에 달한다. 성전문박으로 나간 인원만큼이나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이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교회에 가지 않지만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성도의 증가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구 백석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가나안 성도들이 10년, 20년 후에도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성도 개개인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힘을 때 교회는 탈종교화 바람에 밀려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장합동 女 사역자 위한 세미나에 시선 간 이유는

삼일교회 ‘본문이 살아나는 설교’ 주제 세미나

“목사가 아닌 여성 사역자들이 재교육 기회가 제한적이고 설교할 기회도 많지 않다 보니 장년 설교를 맡게 되면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김효선 삼일교회 심방 전도사)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 소속 여성 사역자들의 이 같은 고충에 삼일교회 미셔널신학연구소(대표 송태근 목사)가 답했다.

‘본문이 살아나는 설교’를 주제로 19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에서 열린 ‘제1회 여성 사역

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에서도. 예장합동 소속 여성 사역자는 남성과 똑같이 신학대학원(신대원)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도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 일생 전도사로 사역해야 한다.

교단 내 여성 사역자의 비율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보니 교단 내에서 여성 사역자만을 위한 맞춤 설교 세미나는 찾기 어려웠다. 남성 목사가 주로 참여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직분도 목사가 아닌 데다 설교를 준비하는 훈련이 부족한 여

성 사역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다.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서 60여명의 여성 사역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강사로 나선 권호 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본문’을 정하고 ‘목상’한 뒤 ‘연구’하는 설교 준비의 3단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권 교수는 “본문을 선택하는 데 열 에너지를 쏟기 위해 마태복음처럼 책 하나를 정해 두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연속 설교를 하는 게 좋다”면서 “눈과 입, 머리로 함께 본문을 읽으며 설교 때 자연스럽게 본문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익히고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와 문법, 시대적 배경 연구를 통해 설교의 깊이를 더하라”고 했다.

미셔널신학연구소도 이 같은 설교세미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연구소 디렉터인 김일호 목사는 “여성 사역자들의 설 자리도, 재교육 기회도 많지 않았다”면서 “이런 세미나가 지속해서 진행되면 여성 사역자들이 전문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여자장·청소년 돕는 ‘디얼핑크박스’

기아대책-기아노사협동, 여성용품 및 친필 응원 메시지 담아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기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전국의 여성 가장과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디얼핑크박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얼핑크박스”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저소득 여성 가장과 청소년 미혼모 등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

어 올해 2회 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기아대책은 기아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억 원의 기금을 기탁 받았다.

기아대책은 기금을 활용해 여성 위생용품과 건강식품, 식료품, 화장품 및 관계자들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 등으로 구성된 ‘디얼핑크박스’ 600개를 마련했다. 디얼핑크박스는 한국

미혼모가족협회, 글로벌한부모센터,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 여성 가장 400명과 취약 가정 여성 청소년 200명에 제공될 예정이다.

홍진성 기아자동차지부장은 “가정을 부양하는 모든 어머니와 딸들, 청소년미혼모가 자존감을 높이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립 희망친구 기아대책 부회장은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장은 생계와 육아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변의 지지와 관심”이라며 “기업과 임직원,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사회 속 취약한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온전한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4)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인류의 소망을 선물하는 최적기, 연말연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BH대학의 총장님, 여러 대학에서 오신 한국학교수님들, 모든 귀빈들, 모든 참석자들, 무엇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 배우시는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비슷한 것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슬픈 과거와 밝은 미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은 여러분들처럼 오랫동안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 나라들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식민지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오랫동안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을 향해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부모들이 많이 헌신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외국 문화를 익히는 것이고, 그만큼 자신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오랜 적국이었던 미국과도 수교하며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

다. 한국의 문화는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5000년의 민족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굳게 닫힌 한국이 세계에 문을 열던 19세기 말에 소개된 것이 서양의 의술(medicine)과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인

이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살라고 스스로 죽음으로 분을 보이며,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말기유에 예수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노엘 축제입니다. 우리들은 그간 여러 나라들

간의 존엄성과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을 가르치는 학문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유교가 국교가 된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 모든 사람이 존중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가르침이 소개된 것입니다.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졌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은사(gift)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150년 전의 한국이라면 오늘날과 같은 K-Pop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계급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

을 방문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의 문화를 통해 배움을 얻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학을 가르치고, 한국학 전문가들을 양성해온 GH 재단과 BH대학이 함께 노엘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축제를 통하여 베트남인들에게도 진정한 노엘의 의미가 나누어지기를 바라며, 한국인들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노엘 축제의 기쁨이 넘치시기 기원 드립니다.”

위의 메시지는 베트남의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두 달 동안 한국어 경연대회,

K-Pop 경연대회 등을 거쳐서 최종 발표회와 축제에서 나는 내용이다.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행사를 허락한 예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전에 학교 당국자로부터 기독교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는 경고 받고 사전 검열을 받은 후에 나는 내용이다. 직접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아주 민감한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감을 하며 나는 메시지이다. 선교사는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지만 허락된 환경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도 가장 유연하게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기간이 성탄과 연말연시 축제 기간이 된다.

선교사들은 창의적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국에서 모르기 때문에 강제 출국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자국에 재정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 불안 요소들이 증폭되어 폭발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J국에서 25년 이상 사역하다 비자발적 출국을 당한 선교사의 경우는 당국에서 담당자가 선교사의 신분, 가명, 재정지원 교회, 선교단체, 활동내용 등까지 파악하고 자진 출국을 종용하였다. 그 오랜동안 신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요구들을 종합하여 사회에 극히 위험 요소가 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변경될 때에 더욱 심하게 단속을

기도 하고, 일반 성도들도 과도 교제가 활발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약 한 달의 기간이 복음의 접근성을 넓히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직접적인 복음전파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환경마다 독특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문화와 상황에 적합한 복음전도 방법을 찾아내고 준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미주한인교회도 이 기간 동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사회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소비주의의 성탄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임마누엘의 정신을 기리며 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해외 불우아동들을 위해 성탄 선물상자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직접적인 불우 이웃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종교든, 대학생들의 수양회가 많이 계획되는 시기이지만, 자신들만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웃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잘 준비하여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분주함 가운데 지나쳐버리는 기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은 성탄 선물을 산타에게서 받는 것의 즐거움도 좋지만, 산타가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특히 이웃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기이니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번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미주한인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모두가 참여하고 변화되는 기회가 있기를 기원해본다.

dr.yongcho@gmail.com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성탄과 연말연시 진정한 임마누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을 다해 노력한다. 복음전파가 자유롭거나 비자의 문제가 비교적 쉬운 나라일 경우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을 위시하여 거의 모든 사역들을 자유롭게 진행한다. 거주나 복음전파가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인 경우는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다. 선교사가 꼭 필요한 나라일 경우는 대부분 비자의 문제가 어려운 선교적 목적으로는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제한적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다. 보통 학생 비자, 사업비자 등을 받아서 거주 신분을 보장 받으려고 하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많은 선교사를 가운데서 골라내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평소에도 노골적으로 반체제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전한다거나 유관 단체와 협력한다거나 하는 일을 통하여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특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간 동안 더 유연한 대처를 하거나 단속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 선교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연말과 성탄을 맞아 일 년의 기간동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모슬렘 까지도 성탄절을 축하하며 교회를 방문하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력가)

24강. 가나안 정탐, 아론의 지팡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 / (민수기 13-19장) (2)

성경의 이중 구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이중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선포된 말씀의 당시에도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호세아’와 ‘예수’와 함께 이름의 뜻으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아 가는 예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광야, 가나안은 단지 땅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전의 세상’, 광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를 앞세워 갈렙의 승리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한 덩어리로 보자면 애굽 즉, 세상을 나온 ‘옛 사람’은 죽고 가나안에는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모양인 것입니다(렘 4:24/ 골 3:9,10).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 아직 ‘죄인’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반복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롬

6:6/ 었 4:22/ 골 3:9). 물론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다분히 성경 전체에서 ‘예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론도 미리암도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에

것은 아닙니다. 계수된 자들 중에서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다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아내실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서 드릴 각종 제사와 그에 따른 헌물과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민 15:1-12) 본토 소생이든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민 15:13-16). 또한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제(민 15:19-21), 그릇 범죄하고 부지중에 범죄한 자가 드려야 할 화제, 소제, 전제 그리고 속죄제(민 15:22-28)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역시 본토 소생이든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민 15:29). 그런데 누가 되었든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임이

다(민 15:30,31). 그래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고의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민 15:3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민 15:41)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여 이 술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그들이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옹졸하지 않게 하라’(민 15:38,39)고 하십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스스로 원해서’ 나온것일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떨려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당연

로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민 16:3)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렸다’(민 16:4)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는데(민 16:5-10) 그들의 행위는 모세를 거스르는 것(민 16:2)으로 끝나

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엎드렸던 모세도 심히 노하여 레위인들이기에 사용하는 향로를 가지고 향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민 16:15-18). 고라는 반역을 주도하여 회중을 삼각 앞으로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합니다(민 16:19).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중을 멸하려 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중재하고(민 16:22) 결국 고라당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장막과 재물까지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삼켜버립니다(민 16:31-34). 그리고 함께한 250명의 지휘관을 하나님의 불이 불살라버립니다(민 16:35).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니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라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니 줄을 너희가 알리라’(민 16:28-30)고 하였고 그대로 되었음에도 그들이 죽은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도다’(민 16:41)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답이 없습니다. 결국 회중도 염병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죽습니다(민 16:49). 그것도 모세와 아론의 헌신적인 중재가 없었다면 얼마나 죽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hfamilyfa@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성탄의 묵상 1 예수 (마 1:21) 찬 115장

이번 주는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 말씀에서 묵상합니다. 그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첫째,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지어준 그 이름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호세아 이름이 예시한 대로 메시야는 자기 백성을 저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신 구주이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죄로부터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

은 대속물을 필요로 했기에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셋째, 그는 풍성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생긴 모든 죄책과 형벌을 자신의 죽음으로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한 중풍병자에게 행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마 9:5)는 선언은 자기 백성만이 누릴 참 자유와 은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고(행 16:31) 이웃에게 힘써 증거하십시오.

화 성탄의 묵상 2 임마누엘 (마 1:23) 찬 104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가 임마누엘 되심을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말합니다. 믿음과 회개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실상인 주가 내 안에 내가 주안에 있는 연합을 가리킵니다. (요15:5) 둘째, 그

연합의 효력은 내세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생활은 부활의 주님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부활하신 예수)는 영(성령)이시라"(고후3:18)라고 함으로 임마누엘의 효력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모든 사역 속에 그는 임마누엘로 나타나십니다. 전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을 누리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구주를 모든 피조물에게 증거하십시오. (막 16:15)

수 성탄의 묵상 3 동정녀 탄생 (눅 1:34-35) 찬 108장

마리아에게 일어난 예수 탄생의 계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된 구원을 강조합니다. 창 3:15 절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구원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십니다. (벧 1:6) 둘째, 전능자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경건과 믿음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그릇일 뿐입니다. 동정녀 탄생

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생깁니다. 셋째, 그것은 구속을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구속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이 바로 그 탄생으로 시작되었음을 찬양했습니다. (딤후 3:16) 구속의 씨앗이 그의 탄생 속에 숨겨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어두운 세대에 동정녀 탄생의 신앙을 증거하십시오.

목 성탄의 묵상 4 말야들의 탄생 (눅 2:7) 찬 109장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누가는 왜 강보에 싸인 아기 예수를 "첫 아들"로 증거했습니까? 첫째, 첫 아들을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첫 아들은 사랑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 아들은 모든 저주를 자신의 죽음으로 종식시키고 그의 부활로 새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롬 5:12-14) 둘째, 그는 구약에서 말하는 초태생의 성취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심판의 때에 초태생들의 죽음의 표인 문설주에 발린 어린양

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완전한 대속물이신 첫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셋째, 완성된 구속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롬 8: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의롭게되고 영화롭게 될 자기 백성이 닮아야 할 구속의 본인 그는 첫째 아들이십니다. 마침내 그는 첫 부활에 참여할 자기 백성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말야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그 형상을 나타낼 자입니다.

금 성탄의 묵상 5 유대인의 왕 (마 2:2) 찬 112장

동방박사들이 받은 계시는 유대인 왕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 첫째,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단지 한 민족의 왕이 아니고 세계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란 뜻으로 유대에서 나온 역사적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19:19)이란 말처럼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 왕이십니다. 둘째, 그는 다윗의 왕통으로 오신 메시야 구원의 왕이십니다. 구약에 약속된 왕권

이 예수에게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서야 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는 참사람이며 참 하나님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예물은 그가 왕이심을 인정한 표시입니다. 실로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가 왕되심을 온 천하에 증거했습니다. 그 왕계 전심으로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토 성탄의 묵상 6 이스라엘의 목자 (마 2:7) 찬 119장

미가서 5: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실 그 왕은 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합니까? 첫째, 그는 교회의 목자란 뜻입니다. 많은 나라 중 선택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끌어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주이지만 그 중 택한 백성인 참 이스라엘의 구주이십니다. 둘째, 그 목자는 인도자를 가리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보혜사로 오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과 연합시

켜 영생을 누리게 하신 자리까지 항상 인도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인도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 그는 참 목자이십니다. 양들의 길에 놓인 고난과 유혹과 사랑을 친히 책임지시고 생명을 버리신 구주님이십니다. (시 23:10) 성탄 절기에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의 참된 양됨을 살피고 참목자의 희생으로 이룬 구원을 방황하는 양들에게 증거하십시오.

기독교교육 (18)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크리스마스 와 하누카(Hanukkah)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클로스과 선물, 크리스마스 파티, 콘서트 및 다양한 공연 등으로 설레며 분주합니다. 설렘과 분주함 가운데 이 계절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잊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념하고 주변에 전파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하누카는 유대달력의 9번째 달인 기슬래월(Kislev)의 25일에 시작됩니다. 기슬래월은 오늘날 그레고리안 달력의 11월 말 경부터 12월 말 경까지입니다. 하누카의 중심이 되는 장식은 메노라 점화입니다. 하누카 메노라는 여덟 개의 촛불과 중앙의 샴쉬(shamash) 촛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샴쉬는 종(servant)을 의미하며 다른 여덟 개의 촛불 점화하는데 사용됩니다. 하누카의 첫날 밤에는 초를 한 개만 밝히고 매일 하나씩 더해 마지막 밤에는 여덟 개를 모두 밝힙니다. 메노라의 불을 밝힐 때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전통적인 축복을 암송하거나 노래를 부릅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맞으면 하누카라는 이름도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수정절(修殿節)이라고 불리는 하누카는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봉헌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8일간 행해지는데, 그 시기가 크리스마스 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누카는 히브리어로 '봉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누카를 시작하게 된 기적의 기름을 기념하며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는데, 감자 튀김인 라트카(Latke)와 젤리 도나스인 수프가니웃(sufganiyot)이 일반적입니다. 돈이나 견과류 또는 건포도 등을 자녀들에게 주고, 이웃을 돕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BC 336년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왕국의 군주가 되어 팽창 정책을 시작한 결과로 BC 2세기경 헬라(그리스) 제국의 시리아 왕국이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시리아 왕국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Antiochus) 4세는 유대교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파괴하기로 작정하고 성전을 약탈하며 구약의 모든 절기를 무효화했습니다. 경전을 못 읽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할례를 금했습니다. 반제단에 얽매지도록 재물로 올렸으며, 그 고기를 삶은 물을 성전 건물에 뿌렸습니다. 성전 입구에 헬라의 신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어린이들은 드레이들(dreidel)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놀이를 즐깁니다. 드레이들은 사면으로 이루어진 팽이인데 각 면에는 '논', '기멜', '헤이', '신'의 히브리어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그것들은 "네스 가 돌 하야 샴(nes gadol hayah sham)"이라는 표현의 머리글자입니다. 그 표현은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더럽힌 지 몇 달 후,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의 북서쪽의 모디인(Modein)으로 사신을 보내어 동네 사람들이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때 모디인에 하스몬 가문(Hasmonean family)의 맛디아(Mattathias)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신 숭배를 반대했을 뿐 아니라, 이방신을 숭배하려는 동네 사람과 안티오쿠스의 사신을 죽였습니다. 그 후 맛디아는 다섯 아들과 함께 저항군을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숨고 밤에는 공격하는 게릴라 전투를 벌여 이방신의 제단들을 파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고, 유대교를 확산했습니다.

빈 그릇을 가운데 두고 아이들이 돌아가며 드레이들 팽이를 돌립니다. 팽이가 넘어졌을 때 위로 향한 글자가 '신'이면 돌린 사람이 그릇에 사탕이나 동전을 넣습니다. '헤이'가 나오면 그릇에 담긴 것의 반을 가져가고, 기멜이 나오면 그릇에 있는 것을 모두 가져가고, 눈이 나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맛디아아가 죽자 그의 셋째 아들 유다(Judah)가 대를 이어 저항군을 이끌었습니다. 유다의 별명은 마카베우스(Maccabeus, '망치')였고, 사람들은 유다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마카비스(Maccabees)라고 불렀습니다. 마카비스는 제사장 겸 전사들이었습니다. BC 164년 마카베우스 유다는 셀루시드 왕조의 그리스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하누카는 토라(모세오경 또는 율법)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유대 문화에 있어 하누카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 신앙이 그리스 헬레니즘과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야외에 메노라를 켜고 함께 노래하며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유다와 동료들은 성전 탈환을 기념하기 위해 메노라(Menorah) 등대에 불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메노라에 불을 밝히기 위해 정결한 올리브 기름을 찾았으나 하루치의 기름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불은 정결한 기름이 더 확보될 때까지 8일이 계속 났습니다. 하누카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기념하는 연례절기로서 8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절기에는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고, 또한 자유롭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크리스마스는 하누카보다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날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크리스천들 안에 거하시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단지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만이 아닙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성기는 날만 이 아닙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만 이 아닙니다. 이날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 중요한 날에 크리스천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연인과 함께 데이트 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공연을 보기만 할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기념하고 알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남아시아 N국
- ▲ 종족명: 불통 종족
- ▲ 인구: 인구 약 35,000명
- ▲ 종교: 대부분 토속신앙, 힌두교, 기독교 약 2,000명
- ▲ 기타: 문맹률 40%(여성 문맹률 70%)
- ▲ 프로젝트 소개: 2000년 신약 성경 번역이 시작되어 2017년 3월에 봉헌되었다. 번역팀은 곧이어 구약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고 2025년 완역

- ▲ 프로젝트 진행: 구약 성경 번역과 동시에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찬송가와 성경 구절을 통한 문해 교육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7개 이상의 교회들은 번역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찬양곡을 만드는 등의 성경 읽기 운동 대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 ▲ 기도제목: 1. 번역된 성경이 각 교회를 통해 잘 보급되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2. 구약 성경 번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믿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

유버전, 2022년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구절과 지구촌 앱 사용 트렌드 발표

올해 유버전 앱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였다(World’s most-downloaded Bible app releases 2022 data trends).

성경 앱 유버전(YouVersion)은 최근 전 세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22년 올해의 말씀’을 공유했다.

유버전의 설립자이자 CEO인 바비 그룬월드(Bobby Gruenewald)는 “이 구절이 가장 사랑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에도 혼자자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우리의 열망 때문”이라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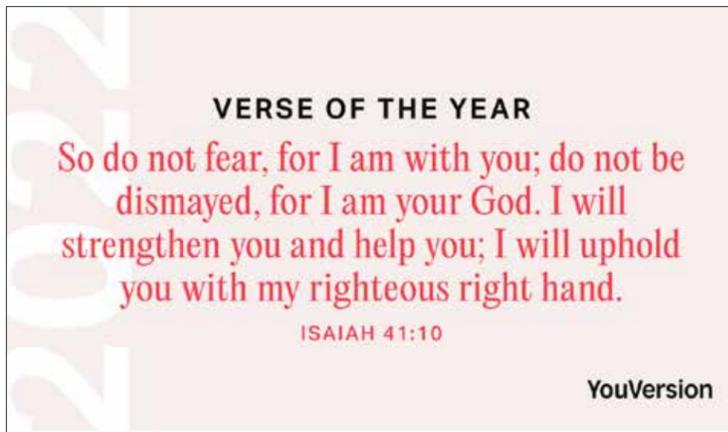
유버전은 또한 우크라이나어 버전의 동향도 전했다.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전개되면서, 유버전은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어 버전 참여가 ‘급상승’한 것을 목격했다고.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성경 참여는 올해 55%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241%, 독일에서는 733% 증가했다.

유버전은 “전쟁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어에서 상위 검색어는 대부분 ‘전쟁’, ‘두려움’, ‘불안’과 같은 단어였으나,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룬월드 CEO는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 아마도 그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의 한 복판에서 그들은 위안, 평화, 희망을 위해 성경에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유버전은 전 세계적으로 5억



4,500만 회 이상의 설치를 통해 2008년 출시 이후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성경 읽기가 증가했다. 올해 쿠바는 성경 참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로 두각을 나타냈다. 한편, 성경 참여에 대한 지역적 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은 유럽과 아프리카이다.

올해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버전기능은 다음과 같다:

- ▶ 불가리아(31%), 폴란드(38%), 우간다(53%), 콩고민주공화국(53%)에서 사람들이 작년보다 더 높은 비율로 구절을 공유하고 있다.
- ▶ 벨기에에는 작년에 비해 오디오 성경 사용이 38% 증가했으며 강조된 구절이 46% 급증했다.

▶ 올해 나이지리아와 프랑스에서 유버전검색은 작년에 비해 각각 41%와 65% 증가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유버전 커뮤니티의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접했다. 사실, 앱의 역대 최고 성경 읽기 일일 측정할 때 상위 10일 중 8일이 올해였으며, 2022년 9월 11일과 부활절 일요일이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함에 따라 YouVersion 커뮤니티는 다음을 수행했다:

- ▶ 앱 55억회 실행
- ▶ 23억 개의 하이라이트, 북마크 및 메모 생성
- ▶ 5억 5천만 개의 성경 구절 공유
- ▶ 3억 3백만 건의 인앱 검색 완료

선교 편지

세네갈

“봉헌 예배”

‘삼’을 사 주어도 공사장의 웅덩이와 흙더미를 왜 땅을 평평하게 해야 하는지를 되묻던 시골 은케년의 성도님들. 자연 그대로의 동식물과 살아가는 데에 익숙한 이분들이 청소, 정리 정돈의 유익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성경은 무엇이며, 왜 알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교회는 무엇이며, 왜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면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얼어 있을 때, 이

은케년 마을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가셨고, 이를 전, (12/10) 우리 모두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솟구치는 눈물은 기쁨의 표현이었죠. 감사의 화답으로, 열정의 전통 춤을 저희 부부도 함께 추었습니다. 섭씨 40도의 열기 속에서 300 - 400 여명의 온 마을 사람들을, 양과 닭고기가 들어간 요리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음부르 학교 증축”

8 교실이 추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충실하게 일할 분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주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밤 줄이지 않게, 재료

공급과 공사장의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기를 끌어 오는 대작업이 이뤄지면, 학교를 upgrade 시키기 위한 컴퓨터 교실, 영어 교실 등의 꿈을 꾸어 봅니다.

“꿈나무 장학사역”

가난한 목회자 자녀들을 돕기 위해 첫 삼을 뺏었던 장학사역이 전 교인, 마을의 교아, 또는 버려진 엄마와 자녀들을 돕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따라 교회에 첫발을 딛은 무슬림 아빠도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보라며 우선 교회에서 첫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눈시울들

이 붉어집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표현이 무표정이던 이분들도 우리와 다른 바 없었습니다.

기도 제목

1. 하나님이 세우신 8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신히 인도하셔서 가난하지만 신실한 주의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2. 생고르, 박세 교회의 벽돌담 쌓기, 음부르 학교 증축 등 건축이 한창입니다. 재료공급이 수월하게 하시고, 좋은 기술자들을 꾸준히 만나게 하소서.
3. 꼬보시계 성도들의 오랜 기도도 내년에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지 선정에 지혜를 주셔서 부흥할 수 있는 곳, 마을과 분쟁 없이 효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을 택할 수 있게 하소서.

4. 이해진 선교사의 어머니 병의 위중으로 은케년 교회 헌당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

발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디 천국 가시는 길을 주셔서 손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West Africa, Senegal에서 이해진, 김미자 선교사 편지 올립니다.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3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후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주해: 이사야 52:13 - 53:12
2. 신약주해: 히브리서 10:19 - 25
3. 논문제목: 포스트 펜데믹의 개혁주의 교회론을 논하라 - 메타버스와 성찬
4. 설교본문: 구약 - 아모스 8:11 - 14, 신약 - 딤후 4:1 - 5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제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3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7회 총회기간(5월23일 - 26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3년 5월 22일(월) - 23일(화)
장소: 퀸즈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시무)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3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박희근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2,23일) 사용될 속도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주소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전화 : 917-254-0887 / 이메일 heepark91@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고시부 서기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홍기표 목사
서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

본지가 보도한 2022년 10대뉴스

[편집자] 팬데믹의 여파를 이겨내고,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교계 각 분야마다 회복의 시도가 일어났던 한해다. 새해에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이전의 활발했던 미주한인교회들과 교계가 되는 2023년

이 되길 기대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본지가 보도한 미주한인 교계 10대 뉴스를 보도 순서로 게재한다.

1. 미주한인역사 빛낸 위인 16인 출간, 미주한인의 날 119주년 기념행사서 프로젝트 발표



(1월 15일 (토) 제 1857호 11면) 미주한인의 날 119주년 기념행사가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 주최로 1월 8일 오후 4시30분 밀레니움빌트모야호텔에서 열렸다. 미주한인역사를 빛낸 위인 16인 출간 프로젝트가 발표됐으며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가 발표했다.

이상명 총장은 "2021년 초 이병만 회장이 119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민역사에 길이 남을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미주한인역사를 빛낸 16인 출간프로젝트는 이민선조의 역사를 자녀세대와 미주 주류사회에게 소개하는 것이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참된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다음세대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자들 중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미국과 한국에서 주목받는 분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2. '코로나시대의 선교전략' 주제 KWMF 2022 LA서밋 컨퍼런스, 국가별 선교현황 발표



(4월 30일 (토) 제 1871호 11면)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표회장 강형민 선교사)가 주최한 KWMF 2022 LA서밋 컨퍼런스가 '코로나시대의 선교전략'이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교현황에 대해 조사한 2022 국가별 선교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3. KCMUSA창단 20주년 기념, 미주한인교회사 출판예정



(5월 14일 (토) 제 1873호 11면) 재미한인기독교재단(KCMUSA, 이사장 박희민 목사) 미주한인교회사 출판 자문위원 위촉식이 5일(목)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미주한인교회사(발행인 박희민 목사, 편찬위원장 조명환 목사, 이하 교회사)는 KCMUSA가 재단 창단 20주년을 기념하여 미주한인교회는 물론 미주이민사회에 뜻있는 일을 하기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회사를 출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팀을 구성하여 작업에 들어갔다. 미주한인교회사는 46배판 600페이지로 출판이 되며 자문위원은 필자 중에서 선정되었다. 자문위원은 김찬희 박사, 이창민 목사, 오세훈 목사, 남종성 목사, 심상은 목사, 이상명 목사, 신원규 목사, 이상복 목사, 이승중 목사, 박동건 목사 등이다.

4. KAPC 제 46회 총회...‘교회의 기초와 권세’ 총회장 홍귀표 목사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5월 21일 (토) 제 1874호 1면) 제46회 총회가 5월 10일부터 13일 까지 Hilton Hotel(시카고)에서 "교회의 기초와 권세"라는 주제로 개최된 총회장 홍귀표 목사(시카고 다민족교회, 중부노

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뉴욕노회)를 선출했다. 금번 제 46회 총회는 325명이 등록된 가운데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각 노회마다 최선의 협력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가운데 진행돼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훈훈함을 안겨주었다.

5. KPCA 제46회 총회 총회장 박상근 목사, 부총회장 서명성 목사, 이화영 장로 선출



(5월 28일 (토) 제 1875호 1면)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6회 총회가 5월 10일과 1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 (담임 박상근 목사)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행 20:28, 골 1:24)"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목사총대 135명과 장로총대 93명 총 228명이 참석하여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 회의로 진행된 회의의 통해 신입원을 선출하고 여러 안건들을 다루고 결의하였다.

6.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제41차 정기총회



(6월 25일 (토) 제 1879호 11면)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제41차 정기총회가 '모든 것의 중심되신 예수'라는 주제로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마지막 날 오후에 열린 총회는 김영하 목사(살롬선교침례교회/남가주지방회)와 이행보 목사(내쉬빌연합침례교회/테네시지방회)가 총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투표는 총 323명이 참석하여 6표차로 이행보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됐다. 그리고 제1부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조낙현 목사(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가 추대됐다. 신입 총회장 이행보 목사는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라는 총회 비전을 따라 교회와 총회의 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표명했다. 이 목사는 "70명 선교사 파송과 30개 교회 개척을 위한 5개년 계획 실행에 사역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주 한인침례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들과 협력하면서 70명의 선교사와 30개 교회 개척을 위한 '2026 비전'을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미국 내 15개, 캐나다 10교회, EM 5개 교회를 목표로 교회 개척 운동과 전도 활성화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7. 제9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7월 16일 (토) 제 1881호 10면) 제9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지난 7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한인세계선교대회는 1988년 부터 시작되어 4년마다 개최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을 쉬고, 6년 만에 마침내 열리게 되었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 대회가 됐다.

8. 2022 다민족기도대회 성황리에 열려

(10월 8일 (토) 제 1893 호 11면) 2022 다민족기도대회가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주관,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OC교협, 자마, 미주성서화운동본부,



KACC, 은혜한인교회 공동주최로 10월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주님께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Lord)'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다민족기도대회는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인원 동원 면에서 가장 다민족기도대회의 취지에 맞게 다민족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대회로 열렸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렸던 다민족기도대회는 대다수의 한인들과 극소수의 타민족이 모여 드러졌었기에 "과연 다민족기도대회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개운치 않은 기도대회였다. 하지만 이날 기도대회는 주회와 주관을 한 한인교계단체와, 백인교회, 흑인교회, 히스패닉교회, 일본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명실상부한 다민족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드린 대회로 평가되었다. 찬양 역시 은혜한인교회 찬양팀과 히스패닉 교회인 엘림교회 찬양팀이 연합으로 찬양인도를 했으며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찬양을 불렀다.

9. 한인 이민 120주년 행사 및 120주년 기념도서 출간 기자회견



(10월 29일 (토) 제 1896 호)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가 내년 1월 제20회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내년 1월 12일(목) 오후 3시,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 피난선이었던 샌페드로에 정착되어있는 SS 레인 빅토리오 선박에서 기념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사람들(가제)' 출간 기념식 및 축제를 통해 한인들의 역경과 도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1월 13일(금)에는 LA 시청과 캘리포니아 주청사, LA카운티 홀에서 제20회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 및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저녁에는 LA 다운타운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1월 13일부터 20일까지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작가전도 마련된다. 한인 이민 120주년 행사 한미 공동대회장으로는 한국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제63대 법무부 장관, 제44대 국무총리), 미국에서는 김영길 AKUS 총회장(America Korea United Society)이 위촉됐으며, 기념 감사예배 대회장은 한규성 AKUS 회장, 양성전 목사(한국 국회조찬 지도위원), 이상명 박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가 맡았다. 한편 한인 이민 120주년에 맞춰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 발간된다.

10.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



(8월 6일 (토) 제 1884 호)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가 뉴욕교협(회장 김희복목사)주최로 지난 7월 28일(목)부터 31일(주일)까지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에서 "북한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이라는 주제로 4일간 개최됐다. 강사로 임현수 목사(토론토큰빛교회 원로, 북한선교사)와 최혁 목사(LA주안교회)가 초청되어 말씀을 전했다. 북한선교를 진행하던 중 2015년 1월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017년 8월에 풀려난바 있는 임현수 목사는 '북한의 우상화 작업과 영적인 실태'에 대하여 나누고, 북한 억류 기간의 경험을 간증하며 "그 시간이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으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며 고난 가운데서 정결케 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탈북민지원 현황에 대하여 나누며 앞으로 나아갈 북한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다시 팬데믹이전의 대회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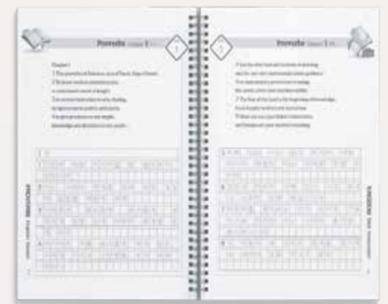
(일반용)



네모 칸마다 소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주세요.



(청소년용)



영어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소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주세요.